

보도일시	2025. 05. 27. (화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 한국환경회의로부터 환경정책 제안서 전달받아

- 한국환경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대전환 촉구”
- 위성곤 위원장, “지속가능한 전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27일(화), 한국환경회의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정책 대전환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한국환경회의 안재훈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국토·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순환 확대,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환경정책 대전환을 위한 6대 분야 정책 제안을 기후위 위성곤·위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지금, 환경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한국환경회의의 정책 제안은 단순한 단체의 요구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키지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터전을 물려주기 위한 절박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전달된 제안은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우리 모두가 살아갈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계기”라며, “기후위는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시민사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물·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통합 물관리 ▲생물다양성과 국토 보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자원순환과 제로웨이스트 ▲환경 거버넌스 복원과 사회참여 확대 등 6개 분야 정책을 기후위에 제안했다. /끝/



<사진> 2025. 05. 27.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정책전달식